

새로발견된古書 ⑤

靑城雜記

柳永博

(서울대학교 文理大 敎授)

1.

이 《靑城雜記》는 이조(李朝) 영조(英祖)와 정조(正祖)시대에 이름있던 학자의 한 사람인 실학파(實學派)에 속하는 成大中 그 사람의 저술(著述)이다. 그러고 보면 이번으로서 다섯번째 책으로 소개하는 古書《靑城雜記》의 경우는 그 저자(著者)가 밝혀져서 매우 다행이다, 이 책은 조그마한 한장 수사본(漢裝手寫本)으로 단권(單卷)이고 지금 이책의 소장서는 이병도 박사이시며 특별한 허락으로 열람의 기회를 가졌다. 이 《靑城雜記》의 목차를 살펴 보면 즉 總目은 A. 揣言, B. 質言, C. 醒言의 三部로 구별되어 있는데 먼저 揣言이란 무엇인가 하면 저자 자신이 크게 느낀 주로 古事에 관련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質言이란 저자 成大中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사색하며 얻은 일종의 경구(警句)라 할 만한 것이며 세번째 醒言의 뜻은 後世에 주는 警醒으로서 반드시 알려 주고 싶은 일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 필자는 이 《靑城雜記》를 여행증에 해제(解題)하고 있다. 누구나 다 그러하겠지만 여행증에 원고를 적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여행이 긴요하고 다급한 여행이던 아니면 휴양을 목적으로한 여행이 되었건 행장에 원고지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아 번거로운 일이다. 이 《靑城雜記》만은 천리 여창(千里旅窓)에서도 읽을만한 훌륭한 이야기들이 수록(收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단풍(丹楓)으로 그 첫손을 꼽는 호남의 내장산(內藏山).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유서 깊은 내장사(內藏寺)의 한 조용한 승방(僧房)이다. 진중일이 길은 내장사를 찾는 무수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워진 석양(夕陽)이 되니, 경내(境內)는 갑자기 적막해진다. 필자가 머무는 이 승방에는 치솟은 산령(山嶺)에 이미 해가 기울러 창문에 산 그늘이 드리워 지거니와 《靑城雜記》를 가져다 펴놓았다. 어제밤에 읽은 부분은 揣言과 質言이었으므로 마지막 부분인 醒言을 읽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 원고에도 醒言에서 여섯개의 이야기를 뽑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 읽어 보기로 하자.

① 竹山峴嶺李氏居之宗黨頗盛戊申逆亂峴嶺直路之衝聚族夜飲朝將避難少者數人奮曰賊聲四擁避將安之土賊之足

畏也吾宗壯者十數手弓者半之合諸家隸僕足當一隊樹旗聚軍鄉里必應有不說者斬數人則集矣丈夫報國與家此其時也萬戶千金在吾拳矣老者熟計曰事當倚重安得元帥之令而奉之少者有與陽智倅善曰倅在元帥陣中我嘗請往謁之得一令旗足以號令一鄉衆應日然婦女皆奮俟曉而趨而戎製未具也截白袷袖而衣之佩矢曳弓旅赴陣後彷徨瞻跛若偵伺者然斥埃者執之呼曰我義兵也時賊自稱義兵而稿其服也遂以爲賊也並斬之獨知陽倅者卒聞其聲救之而免李族珍矣朴逆弼顯嘗居尙州朴東亨趨走事之若僕隸弼顯善相當曰東亨必貴戊申弼顯將以泰仁叛招東亨付以邑稅之半曰吾學大事事成直拜汝以泰仁不成匿於汝以此餉吾東亨受之以返賊敗弼顯果走東亨東亨誘使深匿趨告之州州賊弼顯奏東亨功封君以弼顯之財賞之弼顯知東亨必貴而不知以己貴也亂臣賊子適足爲人資也然李奮義而珍朴與逆而封故故事雖善迂舉則敗情雖惡中機則獲

② 麻貴戰倅於素沙纜布陳倅之挑戰者舞劍而前浙兵鎗者出應之少焉齒劍而仆其子四人相繼而赴並死之劍益前逼一軍恟懼將軍厚募於軍軍莫出者鮮兵有衣褐者捲袂前揖請以徒手取之衆皆目笑其狂然未有以應之也姑使之出敵衣褐者出兩手不持寸兵徒僕而舞倅亦不以爲意時或停劍而笑俄頃劍者忽倒取其劍而斬之以獻倅軍氣奪戰遂以捷將軍置衣褐者首功而問曰若知劍術乎日未也然則何以讖倅曰吾幼而病覺獨處一室無所用心乃習以雙針穴鬪而擲之辨色而習抵腴而息日以爲常始則閃乎其墜也久乃挺挺乎其赴也尋丈之內發必命中三年之後遠者週細者大准吾針之逆焉指與心通百不失一技成無所用之師與而吾適週伸令乃用之敵也徒手而舞若狂倅固笑侮而不吾刃也庸詎知吾針之伺其瞋耶視之隨各飲針者寸

③ 閱牋之數不知始於何代而崇禎末張炫得之於燕以來其法四綱分用入物物各有將數共八十老少相克多獲者勝人雉鳥魚並以老克少而皇鷹鳳龍爲之將星馬克獐並以少克老而極乘鷲虎爲之將始始稱局手未幾偏於國中之耽之甚於博奕金荷潭時讓解之曰南西之分黨久矣老少論又將分矣然人皇在焉掌國命者必老也鱗羽並網羅之物而幸於老敗則必墜珍矣星之用在夜雖文明雖乎其專局矣虎與鷲同耦傷人必多馬者午也南人必與少合然不過八十年則並息矣後果如其言

④ 都下丐者歲常數百人其法擇一丐以爲帥行止聚散一聽其令無敢少違朝夕聚其所丐奉餼帥惟謹帥居之自如 英廟庚辰大稔 上命中外說宴以娛龍虎營樂冠於五營有李姓者爲之首號曰牌頭素以豪學稱都下倡妓皆附焉時酒禁方嚴上下宴專以妓樂相向得龍虎營樂者爲雋不得者以爲恥李疲於招邀或托病在家忽有一丐至請曰丐之帥某敬告牌頭幸國家有命萬民同樂小人雖丐亦國民也方以某日集羣丐宴於鍊戎臺敢勞牌頭助樂小人不敢忘德李大怒叱曰西平洛昌之招吾猶或不赴豈爲丐者樂哉呼其僕逐之丐嘻笑去李逾益憤叱曰

吾不圖爲樂之賤至于斯也巧乃欲役我已而叩門聲甚厲李出視之衣袴盡破而軀軀甚壯乃巧師也瞻目視李曰牌頭能銅額而水舍乎吾徒數百人散在城中徼巡不問也一捧一趨牌頭能保無事乎爾藐視我太甚李故以樂游遊習巷曲問事乃笑應曰子誠男子我不知故誤令則惟子言之從巧師曰明日早食後公與某妓某工至摠戎廳前階大張樂勿違期李笑應曰諾帥熟視去李乃盡招其徒琴笛筚篥各以新具至名妓數輩畢來請所之李笑曰第隨我至期日作樂衆樂皆作妓皆無於是藁衣索帶羣舞而會者如蟻之集干挫也舞止輒歌歌止復舞曰樂哉吾屬亦有一日巧師據高座臨之意得殊甚妓皆駭喚不止李詢止之曰勿喚彼帥能殺我况若耶曰且脯衆巧以其次坐各探其僭或出一鬍肉焉或出一塊餅爲宴家之所乞也盛以破瓦薦以編草雜進之曰小人方宴敢先饋諸公李笑謝曰吾能爲君樂不能受君之饋巧笑拜曰公等貴人其肯嘗巧食乎請烏君盡之李益冷妓奉樂侑宴罷衆巧復起舞少焉又出其殘果敗蒿以遺羣妓曰無以報勞請以饋公之稚子幼孫妓皆謝却之巧又盡曝己拜謝曰賴諸公飽矣向夕巧帥前拜曰吾徒方求夕食敢謝諸公之勞他日見諸道路皆散去衆妓皆飢困恚李李嘆曰吾今日始覩快男子也後遇巧者輒心識之竟不得見其帥爲

⑤ 奴婢之從母役始於高麗肅宗並推良產未知始於何時顯宗己酉從良肅宗乙卯還賤辛酉又從良己巳還賤而己屬良役者勿論大抵西人主從良南人主還賤亦成偏論據局則輒行其法而甲戌更化則因之 英宗庚戌又命從良行之數十年矣辛己金判書孝大自關東伯還爲承旨盛陳驛驛之凋幣請復推良產洪相鳳漢亦贊之 上既允許舉條出矣李判書益輔貽書洪相責以捨已論而從他論洪相始覺其誤條下刑曹者令勿頒布大典通編只載公私賤從母役之法令則良產斷不得推矣

⑥ 雲心密陽妓也選至都下劍舞名於一世尹白下淳嘯之白下故善書戲語之曰汝之劍舞能使我悟草書乎雲亦雅慕公書願得而寶藏之公諾之而未就嘗秋雨獨坐落葉滿庭雲忽捧酒而至歌以侑公公欣然小醉屢睨筆硯視雲遞解錦裙前鋪曰公不念前諾耶公乃放筆書歸去來辭自以爲得意或雲秘蓄母出醉偶泄之趙豐原召雲問之雲不救匿遂爲豐原有雲終身以爲限雲老而偏遊名勝關西劍妓多其弟子者嘗登樂山東臺下臨絕壑萬仞雲適醉矣仰天歎曰樂山天下名區雲心天下名妓人生會當一死得死於此足矣仍投崖而顛僞人持之僅免雲之風韻性氣如彼故能擅名一世

死於項羽刃者皆英雄死於秦檜筆者皆君子

2.

위에서 여섯개의 이야기를 읽어 보았다. 독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좌우되고 경중이 가려지겠지만, 필자는 두번째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고 또한 유익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原文을 번역하여 보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근 4백년전 임진왜란 때에 있었던 사실이다. 전후 7개성상(七個星霜)에 걸

쳐 이나라 강산(江山)을 왜놈이 짓밟고 선량하고 병화로운 백성을 도륙하고 노략질하던 그때의 일이기 때문에 거금 수백년전 일이라고 해도 지금에 와서도 분노가 가슴을 메우는 터인데 이 《靑城龍記》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는 그 분노와 치욕의 울분 속에서 한가닥 시원하고 후련하게 통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지금 필자가 묵고 있는 이 내장사(內藏寺)도 저 유명한 백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고찰(古刹)로서 왜란당시(倭亂當時)에 불타버린 바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당시의 그 웅대한 규모를 재구(再構)하지 못한채 지나 오고 있는 것이어서, 여러가지로 이 《靑城雜記》에 실려있는 대왜전(對倭戰)의 기록과 관련하여 적지않은 감개가 떠 오른다.

素砂에서의 싸움이 왜란당시 어느 해(年), 어느 달에 있었는지 그 년월이 분명치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 하겠으나, 아무튼 유명한 싸움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素砂의 넓은 들판에서 왜병이 포진(布陣)하고 대결하게 되었다. 이때 우리 나라 군진(軍陣)에는 중국 절강(浙江)의 병사가 참전하고 있었던 터이다, 이 절강 원군(援軍)은 장창(長鎗)을 쓰고 왜병은 단검(短劍)을 사용하는 소위 무검(舞劍)으로 도전(挑戰)하였다. 이 싸움에서 靡貴가 이끄는 사졸(士卒)이 일대일(一對一)로 왜병과 승부를 겨루는 싸움을 벌이었는데 절강병은 긴창으로 싸우고 왜놈은 단검으로 맞섰는데 번번히 절강병은 지고 말았다. 물론 진다는 것은 목숨을 그 자리에서 잃는 실로 긴박하고도 처절을 극(極)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왜병 진영에서 무검(舞劍)을 휘드르며 한놈이 우리 진지를 향해서 도전 하고 나섰다. 그러자 우리 나라에 원군으로 온 절강병 한 사람이 장창을 들고 싸우러 나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단검을 휘두르는 왜병에게 어이없이 절려죽고 말았다. 그러자 두번째의 절강병사가 뒤를 이어 대적하였으나 그도 순식간에 전사하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세번째로 용맹하게 또 싸웠으나 그도 허사가 되어 패(敗)하고 드디어 네번째 병사도 또한 죽음을 당하였다. 이리하여 왜병 한놈에게 절강병 네사람이 한자리에 쓰러져 죽었으니 낭패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길이 살필진대 이 단검을 휘드르는 왜놈에게 무참하게도 죽은 네명의 절강원병은 사실은 한 형제들이었다. 그리고 이 네명의 형제들은 靡貴의 아들들이었다. 이러한 사태를 양쪽 군진(軍陣)에서 지켜 보던 병사들은 왜놈 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아군진영(我軍陣營)에서는 의기소침할말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병사들에게 靡貴

는 다음과 같이 군령을 내리었다. 즉 저 키 짧은 왜병을 목벤 군사는 모두들 응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선뜻 나서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얼마 후에 소매 옷을 걸어 올리고 정갱이를 드러낸 허술한 차림의 조선군이 한 사람 앞으로 걸어 나섰다. 그러자 왜병 진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군 진영에서조차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모두들 하는 말이 저런 미친놈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배잡병이 차림의 남루한 그런 사람이 또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빈주먹으로 나섰으니 미친놈이라는 웃음을 사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리하여 아군 진영에서는 그를 우습게 여긴 나머지 응진하지 말라 하였으나 끝내 나가 싸우고저 청(請)하므로 하는 수 없이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일이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단숨에 절강병사 네명을 휩쓸어 버린 그 무점을 휘두르든 왜놈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고 웃으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때였다. 미친놈이라고 비웃음을 받던 남루한 선병(鮮兵)이 칼을 놓고 웃고 서있는 왜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던 순간에 그 웃고 서 있던 왜병은 순식간에 쓸어지고 말았다. 이 어찌된 일일까? 왜병 진영과 또한 아군쪽에서 다같이 지켜볼 일이지만, 왜병은 칼을 놓고 웃고 서 있었으며 그 배잡병이 걸친 빈손의 젊은이는 그저 왜병을 향해서 걸어닥아서면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홀연 그 웃고 서 있던 왜놈은 말 한마디 못하고 쓰러져 죽었던가. 이로 인하여 사기 충천한 아군의 총공격으로 인하여 素砂의 싸움은 우리 나라의 승리로 돌아 갔다. 이 素砂의 싸움에서 이긴 麻貴 장군은 절강무예(浙江武藝)를 닦은 자기아들 네명이 모두 전사하여 五부자가 원군으로 출전하였던 터에 졸지에 아들 네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직 정갱이를 걸어올린 선병(鮮兵) 한 사람의 묘한 싸움이 전기(轉機)가 되어 승리를 가져오자, 麻貴 장군은 후한 상을 내리고 아울러 어떻게 하여 그 능란한 왜병의 칼 솜씨를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순간에 쓰러트리었는가를 묻게 되었다. 즉 어떠한 검술을 배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왜병을 죽이었는가를 알고자 한다고 麻貴 장군이 물어보자, 이 선병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자기는 어렸을 때에 밭에 병이 생기어 기동하지도 못

한채 독방(獨房)에 혼자 앉아 지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랜동안을 그렇게 홀로 빈방에서 지나다니 무료하기 짝이 없어 바늘을 가지고 작난 하며 혼자 놀았는데 어떻게 놀았는가 하면 쌍바늘(雙針)을 문 창살의 구멍으로 이 바늘을 던져 넣은 것을 거듭하였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고, 하기도 어려웠으나 진중일 앉아서 그것만을 되풀이 하다보니 어느 정도 바늘은 던지는대로 들어맞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이 바늘 던지기 작난을 거듭하였더니 나중에는 백에서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이 명중하였다. 이리기를 3년을 하였다. 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먼곳에서 아무리 적은 목표를 행해서 바늘을 던져도 명중이 정확한 것은 물론이었다. 이렇게 하여 바늘 던지는 것을 배워둔 바 있었으나 어디에다 쓸 일이 없었던 터인데 저 왜놈이 미친듯이 아군을 휩쓸고 비웃고 있음을 보고 이때야말로 자기가 배워두었던 바늘 던지기를 써야 하겠다 싶어 자칭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팔대로 저 왜놈의 눈을 파 보면 알것이라고 말 하였다. 팔대로 그 왜놈의 눈을 파 보니 바늘이 등자에 박혀있었다. 그러므로 이 왜병은 무점을 날래게 휘둘렀던 왜식무술(倭式武術)을 자만하다가 선병 하나가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대적 하겠다고 나서므로 웃고 말았지만, 이 바늘 던지기에 신묘한 솜씨를 습득한 선병에게 실로 칼 한번 쓰지 못하고 죽었다. 그 왜병은 이 선병의 양 손에 보이지 않게 쥔 바늘이 있었음을 어찌 알았으랴. 웃고 서 있는 왜병앞에 이르르자 그 왜놈의 눈동자를 과녁으로 삼고 던져진 바늘은 명중하여 통쾌하게 麻貴의 네 아들의 원수를 갚고 말았는 것이다.

어느덧 고찰(古刹)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내장산 계곡이 은통 불타 버리듯 붉게 물든 단풍에 내일 다시 해가 뜨면 단풍을 스쳐 비쳐드는 아침 햇살이 승방의 창문을 붉게 물드릴 것이다. 대웅전 추녀에 메달린 풍경소리가 은근한데 계곡의 물소리가 더욱 맑게 들린다. 어찌 내일 아침 해에 비치는 단풍을 기다리겠는가. 오늘이 음 9월 13일이니 만월이 다 되었겠다. 단풍진 내장산의 만고절경(萬古絶景)은 저녁이 깊자 더욱 적막하기만 하다. 타는듯 붉은 이 단풍의 계곡에 달빛이 내리 비치면 그 아름다운 경지(境地)야 어찌 필설로 그리겠는가.

